

사 설

폐사지 관리대책 세워야

대법원의 '심곡사지 국가 소유' 판결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그동안 사법부에서 폐사지에 대한 불교종단의 소유권 계승을 대부분 인정해 주었던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아함을 감할 수 없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있던 심곡사는 고려 때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로 그 역사성과 함께 거찰로서의 문화적 가치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터전이었음을 알게 한다. 6.25 전쟁에 소실된 이후 군사작전 보호구역 안에 편입,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찰 자체를 임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폐허의 유물들을 거두어 보관했던 곳이 현재의 심곡사다. 이미 조계종에서도 이를 옛 심곡사와 동일한 사찰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옛 절과 한 심곡사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해석에는 무리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또 하나의

심곡사지 소유에 관한 사고심도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심곡사를 포함, 조계종단에 있어서의 대처방안에 적지 않은 허점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그 허점들을 찾아내, 폐사지 등의 종단 망실재산상을 보호하는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자 한다.

조계종에서는 전국 3천2백여 곳의 폐사지를 파악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의 현장조사나 사지관리에는 소홀하다. 종단은 전국 본 말사를 움직여 하루 빨리 교구 내 폐사지들을 조사 관리토록 하고, 재산관리인 지정과 함께 종단차원의 소유자 복구 신청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모든 폐사지의 소유권은 불교종단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곳은 이 땅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며 그 숨결을 살리는 데는 불교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붉은악마' 명칭변경 공청회

종교계는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단 '붉은 악마'의 명칭변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붉은 악마'라는 명칭은 1997년 공모를 통해 채택된 응원단 이름으로서,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세계4강에 진출하자 외국인팬들이 '붉은 악마'라고 해서 특별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종교계는 축구팀 응원단 명칭 변경을 위해 18일 '붉은 악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공청회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성직자는 물론 학계, 경실련 등에서도 참석키로 했다고 한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쪽에선 '악마'라는 용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해 공

청회 결과에 따라선 명칭변경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붉은 악마' 측은 아직까지 명칭변경을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면, 논의하더라도 회원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경우 논쟁만 하다 마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더 험악한 의미의 명칭을 가진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바꿀 필요가 없고, 또 월드컵 대회 개최가 촉박했음을 이유로 '붉은 악마'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없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향후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단의 활약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 점에서 차에 심도있게 논의,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행단체들 침체 심각하다

회원줄고 노령화 겹쳐, 20~30대 20% 밀돌아

청소년불자들 영입 촉진책 필요

변화부응 포교전략 등 다양화 시급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신행단체들의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삼보회, 대원회, 구도회, 불일회, 달마회 등 70~80년대 재가 신행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회원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64년 창립돼 도심 포교와 재가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었던 삼보회는 80년대 1천여명에 이르던 회원이 현재 1백여명으로 감소하고, 회원들의 주요 연령층이 50~60대로 노령화됐다. 대원회도

90년대 이후 회원이 급감해 정기 법회에 참석하는 회원수가 1백여명에 불과하고, 20~30대 회원은 20%를 밀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회·학생회는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구도회와 달마회, 보림회도 이들 신행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의 침체현상은 재가 불자들의 신행태가 사찰 신도회, 직장 불교회 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단순한 법회와 단조로운 프로그램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행단체가 재가 불자들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불자들의 사회봉사 및 환경운동 등 사회참여

가 늘어나고, 불교NGO가 다수 결성되는 상황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전통적인 신행단체들의 현격 한 활동력 저하는 회원들의 노령화와 청년층의 부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70~80년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두드러졌으나 불교 신행단체들의 사회참여활동은 전무해 청년 불자들을 흡수하지 못했다. 포교전략 없는 포교와 구태의연한 운영도 침체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신행단체들은 침체현상이 지속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보회와 대원회는 회원 감소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 어린이법회 활성화, 각종 문화강좌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림회는 직장인을 위한 참선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깨는 특성화된 포교전략의 수립과 학생 및 청년법회, 불교대학 등을 활용한 계층포교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 공유, 활동가들의 직업적 전문화 등 제반 여건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보회 김민식 이사는 "전통적인 신행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변화에 맞는 포교전략 수립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a.com



“스승님, 감사합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 서울캠퍼스는 15일 중강당에서, 경주캠퍼스는 18일 문무관에서 2001학년도 졸업식을 거행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졸업식에서는 학사 2542명, 석사 532명, 박사 78명이 학위를 받았다.

선학원 이사회...정관개정

조계종 종지 종통 봉대 조항 삽입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8일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9월 6일 '조계종-선학원 정상화 합의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정관에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 한다.'는 조항 등을 삽입했다. 이날 개정된 정관은 또 임원조

항에 '임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선학원 대책위원장 동진스님은 "정관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져 종단화합의 기쁨이 마련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직할행자 교육

21~24일 용주사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21~24일 3일간 수원 용주사에서 직할행자교육을 실시한다.

제22기 행자교육원 입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직할행자교육에는 용주사 불선사 등 경기도 본사 사찰과 서울 화계사, 대구 관음사 등 직할사찰 행자가 참가한다. 한명우 기자

중앙승가대가 교훈을 '신심(信心) 참학(參學) 보경(普敬) 이생(利生)'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교훈이 승가의 구도행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건학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신심'은 불심을 '자기화'한다는 의미이며, '참학'은 학습과 수행으로 신심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뜻한다. 또

신심 참학 보경 이생

중앙승가대 교훈 개정

넓과 교육목표를 함축성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구도이념과 교화이념을 균등하게 담아 이타행을 강조한 교훈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교훈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보경'은 제불보살에게 두루 예경할 뿐 아니라 일체중생을 널리 공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생'은 중생을 이롭게 함을 의미한다. 한명우 기자

Advertisement for '현대' magazine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people and the text '다함께 사찰환경 수호를...'.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 등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신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news.com

Advertisement for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Large advertisement for '신입생모집(2년과정)' (New Student Recruitment) for the Buddhist University of Korea, including details on courses, fees, and application procedures.